

광주 국가지정 음압병상 풀가동...병상 확충 서둘러야

확보된 일반병원 17개 병상은 다른 중증 환자 치료 활용 감염 전문의 확충도 필요...경·중증 환자 분리 배치 불가피

광주-전남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우려했던 국가 지정 음압병상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 당국은 추가로 생길 수 있는 감염 사례에 대비해 환자 수용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지역 의료계에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음압병상 확충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남대 병원 7개, 조선대병원 5개 등 광주 12개 국가 지정 음압 격리 병상 중 10개에 확진자가 입원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만 해도 지역내 확진자 발생이 미미해 경증이나 의심 환자까지 치료할 만큼 가동이 여유로웠다. 그러나 광주 확진자가 12명(3명 퇴원)으로 늘고 정부의 국가 지정 병상 운영계획에 따라 경북 영천의 확진자까지 옮겨오면서 병상 부족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광주시는 일단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일반 음압 병실을 포함해 기동·보훈·첨단·서광·일곡 등 모두 7개 병원에 17개 음압 병상을 추가로 확보했다. 다만 이들 시설 중 상당수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설

치된 것으로, 다른 중증 환자 치료에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음압병상이 있더라도 전남대(6명)·조선대병원(3명), 기동병원(1명) 외엔 감염내과 전문의가 없어 환자상태 구분과 처치, 대응 등에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증 환자 치료는 일반 내과 의사도 할 수 있지만, 기저질환 등 복합적 증상을 보이거나 중증인 경우 감염 내과 의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빛고를 전남대병원에도 8개의 이동식 음압 시설 등을 배치해 사용하고, 기존 국가 지정 음압병실에 병상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이마저도 전문 의료진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결국 광주-전남에서 확진자 발생시 곧바로 국가 지정 병상으로 이송했던 과정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중 일부는 국가 지정 병상이 아닌 빛고를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3일 오후 광주시 서구 유스퀘어(종합버스터미널)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기관·단체장 및 자원봉사자들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재난대책본부에 의료인 6명 참여

자문·정책 의사 등 참여 권한 하부조직 배치만으로 한계 의견도

광주시가 관료만으로 구성된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2020년 3월 2일자 1, 3면)을 받아들인 코로나19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문 의료진을 영입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들이 기존 자문역할은 물론 주요 방역 정책 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높은 행정 관료들의 벽을 넘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의문이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남대학교·조선대학교 병원 소속 감염내과 2명, 예방의학과 2명, 광주시 의사회장, 빛고를 전남대병원장 등 의사 6명이 광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의료지원 분야 역할전문 지원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들이 그동안 행형식으로 광주시에서 견여했던 전남대학교 병원과 조선대학교 병원 내 코로나19선별진료소 폐지를 비롯한 감염병 전담병원 및 관련 시설 대규모 확충, 감염병 전문 의료진 확보와 의료진 교육 시스템 마련, 음압 병상 추

가 확충 등 의료계의 요구가 얼마나 수용될 지도 관심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지역 확산을 가정한 체계적인 방역 로드맵 구성 작업이 속도를 낼 지도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내 위치만 놓고 보면 의사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본부장(시장)-차장(행정부시장)-총괄조정관(시민안전실장)-통제관(복지건강국장) 등으로 구성돼 있고, 나머지 실·국은 통제관 아래 놓여있는 구조다.

예상대로라면, 이들 의료진은 통제관인 복지건강국장 아래 있는 지원총괄(자치행정국, 환경생태국, 안전정책관)조직내에서 자치행정국장이 맡고 있는 의료분야 내 역할전문 지원단에 소속될 가능성이 크다. 관료사회의 조직 구성도란만 놓고 보면 사실상 하부 조직인 셈이다.

지역 의료계에선 관료사회의 터진 행정 절차 없이, 의료현장의 의견을 신속히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선 본부장인 광주시장 직속에 두고 핫라인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달구벌 대구·빛고를 광주 ‘달빛동맹 병상 연대’ 가동

오늘 경증 확진자 5명 이상 빛고를전남대병원에 입원

달구벌 대구와 빛고를 광주의 ‘달빛동맹 병상 연대’가 가동된다.

광주시는 3일 “대구지역 코로나19 경증 확진자들이 이른바 4일 대구에서 광주로 출발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국가 지정 병상 운용 계획에 따라 대구 중증 환자가 전남대병원으로 전원되긴 했지만, 지역 사회 합의에 따라 대구 환자를 다른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받

는 것은 첫 사례라고 광주시는 의미를 부여했다. 광주시는 지역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최대 60명까지 대구 환자를 받기로 했으며 1차로 이송할 인원은 5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들은 구급차를 타고 달빛고속도로를 이용해 이동한다. 예상 소요 시간은 3시간으로 일반인 접촉 차단을 위해 정차 없이 광주로 향한다.

구급차에는 비말 접촉을 차단하도록 운전석과 확진자 사이 칸막이를 설치하고 소방대원은 방호복을 착용한다. 이송 후 보호장비는 전량 폐기하고 구급차는 내의

부 소독 후 다른 확진자 이송에 사용된다. 확진자들이 광주 빛고를 전남대병원에도 착하면 ‘레벨 D’ 방호복을 입혀 병원 안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송 시 공기 속에 묻어 나갈 수 있는 병원균을 외부와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대구 확진자들의 병실로 사용될 병원 5~6층은 8개의 이동형 음압병실, 49개 격리 병실로 구성됐다.

음압병실은 복도, 전실, 병실, 병실 안 화장실 순으로 기압이 낮다. 공기를 밖에서 안으로 흐르게 해 바이러스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구조다.

확진자가 머무는 곳과 병원 복도 사이에는 별도 공간인 전실로 구분됐다. 병원에는 현재 의사 12명, 간호사 51명이 대기 중이다.

식사는 병원식으로 하루 세 번 병실에 개별 전달하고 식기는 1회 사용 후 폐기한다. 가족들은 동행할 수 없다.

중증 환자가 아니어서 환자들은 맥박, 수축기 혈압, 호흡, 체온, 의식 수준 등 증상 평가를 받게 되고 증상이 사라진 뒤 24시간 간격으로 2번 검사를 거쳐 음성 판정이 나오면 퇴원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추가 확보 신청지 명단 교육생 등 2520명 조사

전남도 1만6058명 조사 마쳐

광주시가 추가로 확보한 명단을 토대로 신청지 교육생 등의 코로나19 조사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미확진된 신도 38명을 제외한 1만605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마쳤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신청지역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전남 등 지역 외 거주 신도 1920명, 학생·유년 신도 2031

명, 교육생 3000명 등 6951명에 대한 분류를 마치고 조사를 시작했다. 지역 외 신도 명단은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하고 교육생 등 연락처가 없거나 학생·유년을 제외한 2520명을 조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지금까지 시가 확보한 교인 수는 신도 2만6833명, 교육생 5003명 등 모두 3만 1836명으로 애초 신청지에서 밝힌 후보 다 신도수는 118명이 많고, 교육생은

375명이 적다. 이로써 신청지가 과거에 밝혔던 광주지역 신도 3만2093명 중 257명이 적은 신도명단을 확보했다. 시는 신청지 교인 명단을 주소지별로 나눠 지자체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단 추가 확보 전 1차 전수조사자 2만4904명 중 2만 4798명은 전화 확인을 마쳤으며 연락이 닿지 않았던 99명 중 53명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46명은 소재 파악 중이다. 유증상자로 분류된 239명 중 233명은 음성 판정을 받고 6명은 검사 예정이다.

전남도는 자체조사 등을 통해 신청지 신도 명단 1만6096명 가운데 미확인 신도 38명을 제외한 1만6058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며, 이 가운데 유증상자는 194명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180명(92.8%)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11명은 검사중, 3명은 검사가 예정돼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